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

(에스겔 1:15~28)

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21.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강조하고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이제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방식이란 이력서의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의 인간됨과 업무소양만을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이전에는 이력서 중심의 서류전형이었습니다. 일류대학을 졸업했다면 면접에서도 대단히 높은 가산점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어서 맡게 될 과제에 대한 해결능력 자체보다는 일류대학 졸업장의 유무로 채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블라인드 방식의 이점이라면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이 학벌이라는 벽에 막혀 채용이 되지 않거나, 실제로는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벌만을 통해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에 대해서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버티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블라인드 방식이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해도 이력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력(履歷)은 신발 이(履)에 지낼 역(歷)으로서 말 그대로 신발을 신고 걸어온 삶의 여정입니다. 이력서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과 소양도 결국은 이력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선민의 삶에서는 이러한 이력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력 자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 선민의 삶의 특징이 이력서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 발로 걷고 뛰어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에스겔의 환상에 비추어 보자면 선민의 삶이란 내 발로 걷고 뛰는 대신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네 생물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완전한 관계의 모습을 형상화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과의 관계없이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뿐이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본문의 네 생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관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마음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 육체에는 바퀴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네 생물의 형상을 따라서 참 선민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선민의 삶은 육체의 발로 걷고 뛰며 이력을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에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 머물고 육체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선민이 삶을 돌아보면 이력서가 없습니다. 내가 걷고 뛰어온 발자국이 보이질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살아온 바퀴 자국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민이 이력서를 갖는다면 마음에서 날개를 떼고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통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선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올라간 상태가 된다면, 육체가 지나온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신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순간에 보았던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언급되는데 이 보좌는 궁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이 보좌를 받들고 있습니다.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5~25절까지 이어지고 26~28절까지는 이 네 생물이 받드는 보좌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묘사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묘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묘사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이 환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하만 하는 단어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날개, 바퀴,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생물의 상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물들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갔기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이러한 추락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고 하늘 기류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앨버트로스와 같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 후에 닭이 되었습니다. 날개는 있으나 날 수가 없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에서 네 발로 뛰어다니는 개에 비해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닭의 우월함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새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붕까지밖에 오를 수 없는 닭은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이왕에 날개가 있으니 "닭 쫓던 개 구름 쳐다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이 날고 싶을 것입니다. 고작 초가집지붕에 오르고 나니 숨이 차서 더는 날 수가 없는 삶이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를 이동하지만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력서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력서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투자해서 이 땅에서 내 발로 걷고 뛴 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력이 없는 삶은 신나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는 땅에 붙어 살아가는 존재에게는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땅에 머물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손은 곧 삶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마음이 날개를 달고 하늘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땅의 삶도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독수리나 앨버트로스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닭이 되어 버렸습니다. 닭은 잡아먹기 위해서 기릅니다. 이러한 닭은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 몇 번의 날갯짓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닭이 하늘과 무관하듯 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작 이러한 빈도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 선민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에 날개가 뜻하는 바는 선민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영토나 국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민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영토를 통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당을 건축하셔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 분께 제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목회 현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회 현장을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인터넷 망으로 옮겼을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위해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제직회를 이끌어 가면서 많은 수고와 재정을 들이셨는데, 저의 사역에 비추어보니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수고와 노력이 다소 허무해지는 느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기준은 마음에 날개를 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될 넓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날개를 달고 모여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늘은 지금도 사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로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은 사실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날개를 달고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달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달은 뉴욕에서 바라보아도 동일한 달입니다. 달이 하나이듯이 천국은 이 지구 위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의 천국입니다. 마음에 날개를 달고 지금 천국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인입니다. 또한 나의 몸이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천국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45개국에 흩어져 계시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향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교회에 소속 된 교인입니다.

이처럼 교인과 선민에게는 영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민들이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선민 됨을 이루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긴 것은 오히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은 것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더라도 마음에 날개만 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9절을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날개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선민의

공동체는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나의 이력으로 사는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퀴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바퀴에 대한 묘사도 날개 못지않게 난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16~18절의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16절 하반절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라는 부분 때문에 학자들이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바퀴들이 직각으로 위치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행가방 캐리어를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가방 안에 보다 작은 가방들이 두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바퀴의 환상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개를 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삼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말썽인 상황을 현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에 생겨난 모든 위기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현실로 삼고 마음에 날개를 달아 하늘로 향하면 지상의 삶에는 바퀴가 달리게 됩니다. 이 바퀴 안에는 바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요셉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스스로 걸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바퀴를 달고 움직인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동 전체의 대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섭리와 계획의 바퀴를 움직이고 계셨고, 요셉은 그 바퀴 안의 작은 바퀴로써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바퀴는 대기근을 넘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선민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430년 동안을 살며 번성하게 되는 더 큰 섭리의 계획안에 포함 된 것이었습니다.
선민을 향한 섭리의 큰 바퀴 속에 근동의 대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은 바퀴가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작은 바퀴가 있었습니다.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더 작은 바퀴가 있었고, 다시 그 안에는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바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작은 바퀴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고, 또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이 조금 큰 바퀴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고, 그것은 또 더 큰 섭리의 바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 본래 사람의 인생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굴러가는 바퀴처럼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타락 전에 인간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고 타락 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은 오늘 하루뿐이고 지금 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구간이 어떤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조절해보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무엇을 이룰 것이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음을 하늘로 보내지 않습니다. 당장 처한 상황을 빠져나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요셉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로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삶을 위해 시어머니의 고향에 따라가다니 우리로써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먹어야 했기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퀴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는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더 큰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퀴였습니다.

룻이 보았던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룻은 단지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 섭리 속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의 마음은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로 향해있었고 육체에 대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속 바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출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바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리라 믿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마음에 날개를 달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머물게 하면 육체의 일들은 내가 걱정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떤 큰 섭리의 바퀴 안에 포함 될 속 바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날개를 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의 발로 이력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큰일을 꿈꿀 필요도 없으며 대단한 일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괄목할 만한 업적에 대한 욕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틀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처지에서 행하게 되는 행동들도 실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바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하신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안에 내가 포함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속 바퀴로써 나의 오늘을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큰 꿈을 갖고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더러운 이력일 뿐입니다. 참 선민은 이력이 없습니다. 내 발로 걷고 뛰어온 이력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으로 궁창 위의 보좌가 언급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습니다.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느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바다를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음을 느낍니다. 감각으로 느낌을 받듯이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그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기에 추상적인 표현이 되고는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각종 보석 빛으로 표현되고 광채로 표현되고 혹은 무지개와 같은 빛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롱하고 황홀한 빛 자체로 표현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좋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표적 대상인 보석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는 산 아래에서 꿈꾸던 모든 일들을 망각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돈을 가치로써 인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돈은 아기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돈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돈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가며 학습하고 돈을 벌어야만 웃을 수 있다는 돈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오지 않았던 것이 문

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즐거워하듯이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야만 합니다. 논리로 가르치면 마음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날개가 생겨납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다고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논리를 따라 고백함이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 안에서 느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표현해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천국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늘만이 현실이 될 때에 이 땅에서는 내 발로 걷고 뛰는 이력이 생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대단한 꿈이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나갈 뿐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그 일들은 더 큰 섭리와 계획의 바퀴 안에 포함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날개를 달고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으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자국이 남는 신나는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을 믿는 날개를 달기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세상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죽고 아버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나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육체는 계획과 섭리의 바퀴를 따라 움직여지는 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